[UCI]I804:24011-200000232897

2006년 8월
교육학석사(도덕윤리교육)학위논문

孟子의 人間敎育에 대한 硏究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김 영 광

맹자의 인간교육에 대한 연구

A study of Mencius's humanity education

*200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김 영 광

孟子의 人間敎育에 대한 硏究

지도교수 정 진 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도덕윤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도덕 · 윤리교육전공

김 영 광

김영광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성렬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진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재진 인

*2006*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iii

Ⅰ. 序 論 ····· 1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 1

2. 硏究方法 및 內容 ····· 2

Ⅱ. 孟子의 人間敎育 理論의 背景 ····· 4

1. 時代的 背景 ····· 4

2. 人間敎育의 思想的 背景 ····· 5

1) 天命說 ····· 5

2) 人性論 ····· 6

(1) 天의 內在化 ····· 6

(2) 性善說 ····· 8

Ⅲ. 孟子의 人間敎育理論 ····· 12

1. 人間敎育의 目標과 必要性 ····· 12

1) 人間敎育의 目標 ····· 12

2) 人間敎育의 必要性 ····· 14

2. 人間敎育의 內容 ····· 16

1) 四德 ····· 16

2) 五倫 ····· 18

3. 人間敎育의 方法 ····· 21

1) 自己反省 ····· 22

2) 存心과 養性 ····· 23

3) 寡慾과 養氣 ····· 25

Ⅳ. 人間敎育의 理想 …… 27

Ⅴ. 結 論 …… 31

참고 문헌 …… 34

ABSTRACT

A study of Mencius's humanity education

Young-kwang Kim
Advisor : Jin-il Jeong Ph.M
Major in Moral and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view of education based on close examination of human nature which also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of the modern education. Fundamental purpose of school education is to cultivate individual's ability for self-actualization, to raise productive practical skill and to socialize individual as a member of the society.

Education is an activity that fundamentally deals with human being. education also decides way of understanding human beings, purpose, content, and method of education,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child, and the process of mind development. Especially, Mencius's education focuses on treatise of human nature. The main idea of the ethical doctrine of innate goodness is that even though human being is free and natural since the birth the later environment can make one bad so that education should control the bad and lead him to goodness this indicates the positive perspective on education. That is, Mencius understands human being as generally free and naturally good. Therefore, the core of Mencius's concept

of education is to realize morally ideal world, based on the ethical doctrine of innate goodness that in turn is based on 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and wisdom.

Therefore, Mencius's education can be considered as cultivation. Theory of cultivation suggests methods that are used to achieve cultivation of inner character, wisdom, and moral. Theory of cultivation had been considered as the core subject in philosophy even after Song Dynasty as well as in Confucianism of Kungtzu and Mencius. Kungtzu's purpose of self-cultivation was to become a man of honor therefore it suggested 'respect' as the basic point of cultivation. That is, he said that one should cultivate oneself with 'respect' and govern the nation and the world to complete self-cultivation. This further developed more by Mengtzu. He focused on the ethical doctrine of innate goodness. He claimed that the goal of self-cultivation is to recover 'the four virtues' through 'the four principles' and the specific way to achieve the goal is to be truthful. In other words, he meant that human being can recognize his own natural character through self-examination of inner-self.

Mencius's purpose and content of education was transmitted from Kungtzu's teachings. His goal of education was to raise ideal human being through expanding one's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as well as to actualize moral society. Especially, he expanded his goal of education toward 'the four virtues' and 'moral rules to govern the Five Human Relations'.

However, there has been constant questioning about whether it is proactively being a motive of training individual's character and forming human being. It means that modern moral education forgets the meaning of the education for human being and is escaping from the education for human

nature.

Although the level of education has been improved according to the society's transformation into knowledge-focused society, human nature is being impoverished as time goes by and the modern education that only focuses on university entrance exam and knowledge cause much problem of the society. Moreover, modern moral philosophy, responsibility ethics that forms the main current in moral education, and self-controlled approach that now only focuses on reasonableness and rational decision, these result in the crisis of identity. One of the fundamental reasons of this is in lack of education for homo totu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detailed contents and methods of education philosophy through Mencius's theory of human nature to find out and solve the problems of modern education.

Ⅰ. 序　論

1. 硏究의 必要性과 目的

德性을 기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항상 인간의 삶 속에서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의 自我實現을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생산적 實踐力을 기르며, 개인을 사회의 성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교육이 개인의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을 형성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능력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중시됨으로써, 참된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은 외면당해 왔으며, 교육이란 마치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하는 제한된 활동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이 人間敎育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사회가 지식위주의 사회로 전환함에 따라 지식수준은 높아졌으나 人間性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고 입시위주, 지식위주의 현실은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참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인 유교의 全人敎育을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겠다. 유교는 참된 인간(君子)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맹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인 本性이 善하다는 입장으로 이후의 환경에 의해 악해지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惡한 것을 제어하여 선한 쪽으로 인도하면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맹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자연적인 것은 선하다는 입장으로 인간을 이해하였다. 따라서 맹자의 교육사상의 핵심은 仁 · 義 · 禮 · 智를 기반으로 한 性善說을 통하여 道德的 理想世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맹자의 道德的 人間敎育은 우리의 교육에 대해 반성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인간교육의 방향을 정립하고, 인간의

尊嚴性의 가치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맹자는 인간의 내면적 품성이나 지혜 · 도덕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孔子는 君子가 되는 것을 人間敎育 곧 修己의 목표로 삼았으며, 맹자는 이를 받아들여 보다 체계화하였다. 맹자는 性善說에 입각하여 修己의 목표가 四德의 회복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맹자의 교육목적과 내용은 공자의 사상을 전승한 것으로서 맹자의 교육목적은 仁義의 德을 擴充하여 이상적인 인간 곧 聖人 · 君子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맹자의 人間敎育 理論을 통하여 人性의 회복과 全人的인 人間敎育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현대교육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맹자의 인간 교육이론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유학자들의 인간 교육 이론을 모두 다룰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그 중 대표적인 맹자의 人間敎育 이론만을 연구하고자 한다.

2. 硏究方法 및 內容

이 논문은 맹자의 人間敎育 이론에 관하여 연구 검토한 문헌적 연구로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필자는 맹자의 교육에 대한 견해가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된『孟子』를 중심으로 하여 孟子의 人間敎育에 관련된 저서들과 논문 기타 선행연구를 기초로 삼았다. 또한 맹자의 시대적 배경과 人間敎育의 사상적 배경 검토하기 위해 天과 인간관계, 性善說통해 인간에게 인간교육의 필요성을 철학적 바탕위에서 구체적으로 교육목표, 방법,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문명 세계는 인간 소외현상, 도덕의 타락, 비행청소년 및 노인문제, 세대 계층간의 갈등 및 분열 등의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 문명의 역기능 현상은 일찍이 攻伐과 쟁탈을 일삼던 맹자 당시의 시대

상이 재현되는 듯한 이른바 “장차 사람이 사람을 먹고 산다.”[1]라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실 된 삶의 목적과 의미 및 방법에 관한 교훈을 준 맹자의 敎育思想을 고찰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人間性 함양이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며, 人間敎育이 모든 교육에 선행된다면 人間疎外나 가치전도 및 悖倫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Ⅱ장에서는 맹자의 人間敎育 理論의 배경으로 맹자가 주장하고자 했던 사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인간교육의 사상적 배경으로 인간교육 이론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天命說과 人性論을 통하여 하늘의 의미와 개념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교육이론의 근거가 되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Ⅲ장에서는 맹자의 인간교육 이론을 통하여 人間敎育의 목표와 필요성을 알아봄으로써 仁義禮智의 道德性 培養을 통한 德의 실현과 本性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한 본래의 마음을 保存하고, 慾望을 줄이고 기를 길러 자발적인 성장능력을 擴充시키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전인적인 인간으로서 성취해야할 理想과 도덕교육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으로서의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맹자의 교육이 현대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맹자의 교육이론을 재조명하여 바람직한 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孟子』, 「梁惠王章句上」…上下交征利而國危矣

Ⅱ. 孟子의 人間敎育 理論의 背景

1. 時代的 背景

맹자는 공자의 손자인 子思의 門人으로부터 授業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맹자가 살던 시대에 국가들은 사회적, 정치적 위계질서가 분명한 봉건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국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의 야심과 음모로 인하여 지위의 찬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봉건제도는 뿌리째 뒤흔들리게 되어 엄청난 정치적, 도덕적 무질서가 야기되었다. 孔子에게 커다란 근심을 안겨 주었던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그 결과 맹자가 태어나 활약했던 시대에는 중국 역사상 전국시대(B.C 481-221)라고 불리는 난세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것은 공자가 살던 때보다 더욱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한 시대였음을 의미한다. 즉 춘추시대보다 국가이익의 길을 밟아 온 列國들은 전국시대에 이르러 그 추세가 더욱 더 深化되어 弱肉强食 속에 사회風潮는 음란한 풍속이 유행되고, "上, 下가 이로움을 얻기 위하여 다투며"[2] 염치나 부끄러움이 없는 無禮, 無義의 행위가 보편화 되었으며, 五倫과 君臣, 父子의 명분이 뒤죽박죽이 되어 혼란하였으며, 사회는 不正과 惡으로 많은 사람들은 제 멋대로 학설을 주장하였으며, 그리하여 힘이 곧 정의로 여겨지는 大混亂의 시대가 전개 되었다. 또한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 非一非再하였으며, 道德은 타락하고, 사회는 부정과 범죄로 혼란하였으며, 많은 학자들은 마음대로 학설을 주장하여 모든 면에서 혼란한 시기였다.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제후들에게 개인적 德行과 善政을 강조한 맹자의 가르침은 소귀에 경 읽기와 같은 형국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맹자는 자신의 정치

---

2) 『孟子』, 「梁惠王章句上」…上下交征利而國危矣.

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齊, 宋, 魯, 魏나라 등지를 다니면서 사방에서 유세를 하였으며, 제후들에게 인정을 베풀라고 조언하였다. 齊나라에서는 관직을 역임한 적도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제후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였으며, 그 당시의 열국은 각기 강병을 길러 정벌을 일삼던 때였으므로 맹자의 仁義와 왕도의 주장은 시의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여 용납되지 않았다.

2. 人間敎育의 思想的 背景

1) 天命說

天 곧 하늘은 선진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통해서 혹은 숭배 대상으로서, 혹은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서, 혹은 과학적 인식의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3] 『詩經』이나 『書經』 등을 보면 고대 중국인들은 자연 속에 여러 신들이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그러한 신들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인간의 생사와 길흉화복 등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였다.

고대 중국인들은 농경위주의 생활시대에 황하유역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우주 대자연의 변화현상에 대해 공포와 경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우주 대자연의 변화가 天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天에 대한 敬畏心과 신앙적 天思想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자연계의 모든 사물을 관찰하여 우주전체를 統轄하여 지고무상의 신령이 있음을 상정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자연계의 諸神 내지 우주 전체를 統轄하는 영적 존재가 곧 '天'이요, 그를 경배하는 신앙이 곧 敬天信仰이었다.[4]

天은 '一'과 '大'로 이루어진 字자로서 '一'은 만유의 시원으로서 태초의 유일

---

3) 溝口雄三외 편저, 김석근 외 옮김, 『中國思想文化事典』(東京大學出版部, 2001), 53쪽 참조.

4) 신동호, 「선태유학에 있어서의 人本思想의 전개」『새마음 論叢』 창간호 (충남대 학교부설 새마을연구서, 1977), 54쪽 참조.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大'는 사람이 사지를 편 모습, 즉 최대의 형상의 상형이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天은 萬有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주재자를 表意表象한 것이다. 그래서 은나라 사람들은 하늘을 여러 신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되는 신 곧 인격적 주재자로 숭배하여 帝라고도 하고, 상제 · 천제 · 옥황상제라고도 하여 하늘은 德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징계하는데, 德이 있는 사람, 특히 유덕한 임금이 되려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한다고 하였다.[5] 이리하여 하늘 혹은 天命을 백성의 마음으로 규정하였다. 주나라 사람들은 상제가 천하 만민의 행위를 관장하여 이에 吉凶禍福을 내리는 통치자로 天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주역』은 하늘을 자연으로 보았다. 즉 乾 곧 乾爲天 괘를 64괘 가운데서 가장 으뜸 되는 괘로 삼아서, "乾의 원기는 위대하구나!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만물이 생성되었으며, 또한 이것은 하늘의 도를 이어받았다."고 하고, "하늘과 땅의 기가 감응하여 만물이 생성된다."[6]고 하였다. 즉 하늘이 땅과 더불어 우주 만물을 생성 소멸하게 하는 근원적 존재로 본 것이다.

2) 人性論

(1) 天의 內在化

天에 대한 이해는 인간 존재의 본래적인 근거와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 실천적 사명인 天道로서 天命을 갖게 하는 인도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형은 공자가 "하늘이 나에게 德을 주셨으니 환퇴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7]라고 한 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때의 德이 바로 天을 부여한 性과 관련되어 先天性 내지 본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김충렬, 『중국철학사』(서울 : 예문서원, 1999), 121-123쪽 참조.

6) 金能根, 『유교의 天思想』(숭실대학교 출판부, 1988), 30쪽.

7) 『論語』, 「述而」,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

또한 공자는 “性은 서로 비슷하나 習은 서로 멀어진다.”[8]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구절은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善性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맹자는 天을 주재자의 의미로 쓰기도 하고, 자연 혹은 자연의 이법 곧 天道의 의미로 쓰기도 했지만, 대체로 德性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그는 요임금이 순에게 천하를 물려준 것은 요임금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것이라고 하고,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고 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허약하게 하며, 하는 일을 거슬리고 어지럽게 하는 법이다.”[9]라고 하였으며, “하늘을 따르는 사람은 살아남고, 하늘을 거스리는 사람은 멸망한다.”[10]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맹자는 하늘을 자연 혹은 자연의 이법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하늘의 높은 것과 별의 먼 것에 대하여, 만일 그렇게 된 연유를 탐구한다면 천년 동안의 동짓날을 가만히 앉아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11]

또한 맹자는 하늘을 德性의 근원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성실함은 하늘의 도리라고 하고,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이다.”[12]라고 하였으며, “하늘이 준 벼슬도 있고 사람이 준 벼슬도 있다. 人義忠信과 같은 것은 善한 것을 좋아하여 행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하늘이 준 벼슬이라 할 수 있고, 공경이나 대부와 같은 것은 인간이 준 벼슬이라 할 수 있다.”[13]고 하였다. 또한 “仁은 하늘이 준 벼슬이며 사람이 안주 하는 집이라 할 수 있다.”[14]라고도 하였다.

---

8) 『論語』, 「陽貨」,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9) 『孟子』, 「告子下」, 天將降大任於斯人也 必先勞其心志 苦其筋骨 餓其體膚 窮乏其身行拂亂其所爲 是故 動心忍性 增益其所不能.

10) 『明心寶鑑』, 「天命篇」, 順天者存 逆天者亡.

11) 『詩經』, 「梁惠王上」, 天雖高, 星辰雖遠, 然求其已然之吳, 則其運有常. 雖千歲之久, 其日至之度, 可坐而得. 況於事物之近, 若因其故而求之, 豈有不得其理者.

12) 『孟子』, 「離婁章句上」, 是故誠者, 天之道也, 思誠者, 人之道也.

13) 『孟子』, 「告子下」, 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樂善不倦 此 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 古之人修其天爵 而人爵 從之.

14) 『孟子』, 仁 天地尊爵也, 人之安宅也.

이리하여 맹자의 人性論은 天命이 人性으로 내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天人合一의 경지는 인간의 도덕성의 존재적 근원을 天이라는 객관적인 질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간의 위치를 높이는 근간이 되였다.

(2) 性善說

맹자는 인간교육 이론의 근거로 性善論的 人性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은 공자의 仁사상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데서 출발한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고 性善說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첫째, 性은 선천적 도덕성이다. 天이 善이라는 목적을 지닌 도덕적 天으로 풀이될 때, 天으로부터 부여받은 性이 善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고자는 性이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선으로도, 그리고 악으로도 가공될 수 있다고 유추하였다. 이러한 고자의 유추는 현실의 선행이 오직 환경에 의한 후천적인 습득과 훈련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고자는 도덕성의 근원이 외부적인 조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고자가 말했다. 본성은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른다. 사람의 본성 자체에 선과 불선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 자체에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맹자가 말했다. 물 자체에 정말 동서의 구분이 없기는 하지만 상하의 구분도 없겠는가?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물은 아래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다. 만약 물을 튀어 오르게 하면 이마 높이를 넘어 가게 할 수 있고 물결을 막아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면 산 위에까지 오르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사람이 불선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것도 그 경우가 또한 이와 같다."[15]

---

15) 『孟子』,「告子上」, 告子曰 性猶湍水也, 決諸東方則東流, 決諸西方則西流. 人性之無分於善不善也, 猶水之無分於 東西也. 孟子曰 水信無分於東西, 無分於上下乎?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人無有不善, 水無有不下. 今夫水, 搏而躍之, 可使過顙, 激而行之, 可使在山. 是豈水之性哉? 其勢則然也. 人之可使爲不善, 其性亦猶是也.

맹자는 물의 본성과 같이 사람의 본성 자체는 반드시 선의 성향이 있으나 현실적인 행동에 불선의 소행이 있는 것은 일시적인 외형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둘째, 本性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맹자의 人性論이 가장 부각된 곳은 告子와의 논쟁이다. 告子의 본성은 '태어나면서 갖추어져 있는 것'(生而具有)을 의미한다. 맹자는 고자에게 性善의 고유성을 논증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논쟁에서 주지할 사항은 그들의 논의 대상이 인간의 도덕적 완벽 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발전 한다면 그 이유가 본연의 선성(善性)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후천적 교육에 의해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 "고자가 말했다. 타고나는 것을 그 본성이라고 한다. 맹자가 말했다. 타고나는 것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흰색을 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가? 고자가 대답했다. 그렇다.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흰 깃털의 흰색이 흰 눈의 흰색과 같고 흰 눈의 흰색이 흰 옥의 흰색과 같다는 말인가? 고자가 대답했다. 그렇다.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개의 본성이 소의 본성과 같으며 소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과 같다는 말인가?"[16]

타고나는 것이 本性이라는 고자의 주장은 삶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을 本性으로 이해하는 인성관을 대변한다. 이에 반해서 맹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고자처럼 타고난 것을 本性으로 파악할 경우에 道德本性으로서 人性을 간과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고자와 같은 인성관이 本性과 本能과의 구별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고자와 같이 타고나는 것을 本性이라고 부른다면 개의 本性과 소의 本性은 本性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소의 本性과 사람의 本性도 같다는 것이 된다. 이로 인해서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과 자연적 존재로서 금수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고 맹자는 논박한 것이다.

---

16) 『孟子』, 「告子下」, 告子曰: 生之謂性. 孟子曰 生之謂性也, 猶白之謂白與? 曰: 然. 白羽之白也, 猶白雪之白, 白雪之白猶白玉之白與? 曰 然. 然則犬之性, 猶牛之性, 牛之性, 猶人之性與?

고자의 인성관이 감각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인간과 금수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과 금수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타고난 것이 人性이라는 고자의 입장을 맹자가 논박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금수와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성 때문인데, 고자의 인성관으로는 本性과 本能을 구별할 수 없었던 것이다.[17] 즉 고자는 性을 모든 동물과 인간을 모두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性으로 정의하지만 맹자는 동물의 本性과 구별되는 인간의 德性만으로 人性을 정의하고 있다.

셋째, 인간의 本性에는 仁義禮智의 德性이 갖추어져 있다.

>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사람들이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은 만약 지금 어떤 사람이 문득 한 어린아이가 우물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측은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사귀려 해서도 아니고 마을사람과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어린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도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한 마음은 인의 발단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발단이요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발단이요 옳고 그름의 마음은 지의 발단이다."[18]

맹자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못하는 동정심을 가진다고 했는데, 不忍之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인 것이다. 그것은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친교를 맺기 위함도 아니요, 그 아이가 지르는 소리가 불쾌하기 때문도 아니며, 어린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어린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

---

17) 윤대식, 『중국철학사』, 「맹자의 인성관이 지닌 정치적 함의」(중국철학회, 2004) 72쪽 참조.

18) 『孟子』, 「公孫丑上」,人皆有不忍人之心...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음은 어떠한 목적의식도 없는 인간의 本然之性으로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인간의 善性을 입증하는 근거하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마음은 惻隱之心 · 羞惡之心 · 辭讓之心 · 是非之心으로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마음이 仁義禮智라고 하는 四德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도덕성 곧 四德이 惻隱之心 · 羞惡之心 · 辭讓之心 · 是非之心의 '不忍人之心'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性의 내용이자 본질이다.

넷째, 맹자의 본성은 道德의 內在性과 先天性을 함축한다. 맹자는 四端이 "나에게 존재 한다"[19]고 함으로써 도덕성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仁義禮智의 四德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어있다는 인성론으로 맹자는 이를 통하여 인간내부에서 규범을 찾는 主觀的 倫理觀을 확립하였다.

따라서 孟子가 주장하는 인간의 본성의 근거가 바로 性善說에 있으며, 모든 실천도덕과 수양의 가능성도 性善說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天命을 性이라 이른다."[20]고 하여 性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 사람이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맹자는 이것을 善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치고 善하지 않은 이가 없다."[21]라고 맹자는 주장하였던 것이다.

---

19) 『孟子』, 「公孫丑上」, 凡有四端於我者.

20) 『中庸』, 天命之謂性.

21) 『孟子』, 「告子上」, 人無有不善人無有不善.

Ⅲ. 孟子의 人間敎育理論

1. 人間敎育의 目標과 必要性

1) 人間敎育의 目標

맹자는 공자가 말한 聖人 · 君子를 인간교육 곧 修己의 목표로 삼고 있다. 공자는 修己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인격의 완성자를 聖人이라고 하고, 聖人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기에 가까운 인격자를 君子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聖人이 되기는 매우 어렵지만 누구든지 노력하면 君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그리하여 君子를 만드는 것은 교육의 목표로 삼아서 가르쳤던 것이다.

맹자는 대체로 이러한 공자의 君子에 대한 관념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는 君子라는 말 못지않게 聖人이나 人者 혹은 大人 또는 大丈夫라는 말도 즐겨 사용하였다. 즉 "聖人은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요순 같은 聖人이 될 수 있다."[22], "君子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그 본래의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이다."[23], "大人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은 그 본래의 마음을 잘 간직하는 것이다."[24], "부귀로도 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빈천이라도 이 사람의 지조를 바뀌지 못하며, 위엄과 무력으로도 이 사람의 뜻을 꺾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大丈夫라 할 것이다."[25]라고 하였다.

맹자는 이러한 聖人 · 君子를 四德 곧 四端을 확충하여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

22) 『孟子』, 「告子下」, 聖人與我同類者. 人皆可以爲堯舜.

23) 『孟子』, 「離婁下」, 孟子曰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24) 『孟子』, 「離婁下」, 孟子曰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者也.

25) 『孟子』, 「勝文公章下上」,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무릇 나에게 있는 四端을 다 넓혀서 가득 채울 줄 알게 되면 불이 처음 붙은 것과 물이 처음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니 진실로 능히 채우면 四海를 보전할 수 있지만 진실로 채우지 못한다면 부모조차 섬길 수 없다." 26)

여기서 알 수 있듯이 惻隱之心, 辭讓之心, 羞惡之心, 是非之心의 四端 곧 德性을 인식하여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바람직한 인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四端의 德性 곧 四德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이 맹자가 말한 바람직한 善端의 확충이라는 교육적 노력의 과정을 통하여 仁義禮智의 德性을 간직하고 발휘하면 누구나 聖人 · 君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맹자의 修己의 목적은 '仁義禮智의 도덕성 배양을 통한 德의 실현'에 있으며 '仁義禮智의 德性 培養'이란 인간이 주관적으로 仁 · 義 · 禮 · 智의 德을 자각하여 그것을 간직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이요, 그것은 곧 바람직한 인간 곧 聖人 · 君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孟子는 사람은 누구나 善을 알고, 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良知와 良能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27)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良能이요,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은 良知이다."28)

사람은 배우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仁의 德性이고 공경하는 것은 義의 德性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仁과 義의 德性은 본래부터 알고 있는데 이것을 良知良能이라고 한다.29) 이는 인간의 本性이 선천적으로 善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

---

26) 『孟子』, 「公孫丑章句下」,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通之. 足以保四海. 苟不充之, 不足以事父母.

27) 정진일, 『유교철학원론』(문학바탕, 2005), 182쪽 참조.

28) 『孟子』, 「告子章句下」, 人之所不學而能者 其良能也 所不慮而知者 其良知也.

29) 박찬각, 「맹자의 교육사상연구」(충남대학교 논문, 1984), 27쪽 참조.

라서 수기의 목적은 個人안에 놓여 있으며, '良知良能의 德性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맹자의 人間敎育은 家族을 통하여 德性을 소유하게 하여 실천적인 사람이 되도록 교육한다. 즉 도덕적 자각심은 가족 내에서 부모에게 효도로, 형제에게 공경으로[30] 표현될 때 참다운 도덕을 갖춘 사람이 된다. 즉 가족윤리가 전제되지 않고는 사회 · 국가윤리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人間敎育의 必要性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한 것으로 보아 性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맹자는 人性을 완전한 善으로 보지는 않았다. 性善의 인간관에도 불구하고 耳目之官의 感性的 誘感과 利慾 때문에 사람이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性의 善性을 찾아가는 것이 학문의 길이며, 이것이 곧 人間性의 회복이고, 修己이다. 이리하여 그는 "학문의 길은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31]라고 하였고, "잃어버린 본래의 마음을 되찾을 줄 모르니 애석하다."[32]고 하여, 적극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맹자가 교육 곧 修己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人性이 선하더라도 그 善性을 가꾸고 保存하지 않으면 그 善性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이란 선한 본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러한 노력은 「牛山之木」의 비유로써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牛山의 수목은 본래 울창하게 우거져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산림이 큰 나라의 국도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끼로 마구 베어내었다. 그러니 어찌 본래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지만 잘린 나무의

---

30) 『孟子』, 「離婁上」, 仁之實, 事親是也. 義之實, 從兄是也, 知其二者, 弗去是也. 禮之實, 節文斯二者是也. 樂之實, 樂斯二 者是也.

31) 『孟子』, 「告者章句上」,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

32) 『孟子』, 「告者章句上」, 仁 人心也. 義, 人路也. 舍其路而弗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뿌리는 밤낮으로 쉬면서 다시 자라고 또한 비와 이슬이 내려 적셔 주므로 새싹이 돋아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나 양들이 와서 풀을 뜯어 먹었으므로 저렇게 뻔질뻔질한 헐벗은 산이 되고 말았다. 오늘 사람들은 그 뻔질뻔질한 산을 보고 원래부터 나무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찌 저렇게 헐벗은 모습이 산의 본래 모습이겠는가?"[33]

牛山의 나무가 아무리 울창하고 아름다우며, 材木을 길러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하여 伐木되고 훼손 되면 산의 本性을 維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람도 이와 같기 때문에 맹자가 修己를 강조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인간에게 道가 있으니 배불리 먹고 따듯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 敎育이 없다면 禽獸와 비슷해진다."[34]

맹자는 이상과 같이 인간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맹자는 교육을 "善을 가르쳐서 백성을 얻는 것"(善敎得民)이라 하여 교육을 통한 통치적 이상까지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백성을 교육하지 않고 動員하여 쓰는 것은 백성들을 재앙에 빠뜨리는 것으로 堯舜의 治世에는 용납 되지 않았던 일이다."[35]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맹자는 백성들을 위해서나, 국가나 사회전체를 위하여 敎育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는 善의 교육(善敎)을 통하여 어진 정치(仁政)를 실현하고, 백성을 얻는(得民) 것이 王道의 길이며, 保民 · 保位하는 基本으로 보았다.

2. 人間敎育의 內容

33) 『孟子』, 「盡心上」, 牛山之木嘗美矣. 以其郊 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34) 『孟子』, 「勝文公章下上」,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敎 則近於禽獸.
35) 『孟子』, 「告者章句下」, 不敎民而用之, 謂之殃民. 殃民者, 不容於堯舜之世.

1) 四德

맹자의 교육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四德과 五倫이라고 말할 수 있다.

四德은 四端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맹자는 四德이 발현된 마음을 각각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四端之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四端에서 사람다움의 덕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仁 · 義 · 禮 · 智인 것이다. 즉 "인간이 선한 네 가지 단서는 仁義禮智 이니라."[36] 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仁은 惻隱之心을 말한다. 맹자는 "아버이를 친애함으로부터 출발하여 백성을 인자하게 대하고, 백성을 인자하게 대함으로부터 만물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37]라고 하였다. 즉 仁은 가족에 대한 친애와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인자함과 사물에 대한 사랑이다. 따라서 仁이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도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다.'[38]라고 한다. 사람이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仁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이며, 義도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겸하지 못한다면 삶을 버리고 義를 취할 것이다."[39] 라고 하였다. 또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인 不忍人之心 바로 仁이며 사람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마음씨에서 우러나오는 도리라고 말 할 수 있다.[40]

義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써 仁과 함께 유교윤리의 두 기둥으로 여겨 왔다. 義는 '올바른 도리'로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의 표준이 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41] 맹자는 仁을 인간의 내면적 心性의 바탕으로

---

36) 『孟子』, 「告子章句上」, 四端 仁義禮智也.

37) 『孟子』, 「盡心章句上」, 親親而仁民, 仁民而愛物

38) 『孟子』, 「盡心章句下」, 孟子曰 仁也者, 人也.

39) 『孟子』, 「告子章句下」, 生 赤我所欲也. 義, 赤我所欲也. 二者 不下得兼, 舍生而取義者也.

40) 맹민재, 「맹자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1993), 15쪽 참조.

41) 강봉수, 『유교 도덕교육론』(원미사, 2001). 94쪽 참조.

義를 인간의 외면적 실천 원리로 보았다. 즉 "仁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義를 사람의 바른 길이다."[42]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여 언제나 마음이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義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바른 길로 행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 그 법칙이 있으니 大人은 말로서 믿음을 기약하지 않고 오직 義가 있는 곳으로 한다."[43]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義는 善德이요, 본성의 義之端에서 나오는 것이다.

원래 禮는 생활규범이라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의 禮는 辭讓之心의 단서가 되는 德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경하는 마음을 禮의 바탕이라고 하였으며, "仁을 간직한 사람은 남을 사랑하고, 禮를 간직한 사람은 남을 공경한다."[44]고 하였다. 사람은 남에게 辭讓하는 마음의 단서가 되는 德 곧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德으로의 禮를 간직하고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智는 사물에 대한 앎의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능력의 의미로 사용한다.

> "지혜로운 것을 미워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착하기 때문이다. 만일 지혜로운 사람이 우임금이 물을 다스리듯 한다면 그 지혜를 미워할 것이 없다. 우임금은 물길을 억지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하였다. 만일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한다면 그 지혜는 대단한 것이 될 것이다."[45]

여기서 '우임금이 물을 다스리듯이 한다.'는 것은 물을 자연의 이법에 다라 다스렸다는 뜻이다. 따라서 참된 지는 자연의 이법을 알고, 따르는 것이 된다.

---

42) 『孟子』,「離婁章句上」, 仁, 人之安宅也; 義, 人之正路也.

43) 『孟子』,「離婁章章句下」, 孟子曰 大人者 言不必信 行不必果 惟義所在.

44) 『孟子』,「離婁章句下」, 仁者 愛人 有禮者 敬人, 愛人者 人恒愛之, 敬人者 人恒敬之.

45) 『孟子』,「離婁章句下」, 所惡於智者 爲其鑿也 如智者若禹之行水也 則無惡於智矣 禹之行水也 行其所無事也 如智者亦行其所無事 則智亦大矣.

그런가 하면 맹자는 智를 인간의 내심에 있는 도덕성으로서, 이것에 의해 잘잘못을 판별하는 덕의 의미로도 사용하였다. 모든 善惡, 是非 등은 是非之心의 智로써 "지혜로운 자는 모르는 것이 없으나 마땅히 힘쓸 것을 급히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46]라고 하면서 智란 판단능력이고 인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是非之心은 곧 智다.[47]"라고 하면서 智를 도덕적인 시비 곧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德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그는 "仁의 실상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이요, 義의 실상은 형을 좇는 것이요, 智의 실상은 이 두 가지를 알아서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48]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는 仁과 不仁, 義와 不義, 是와 非 등을 구분할 줄 알아서 전자를 좋아하고 후자를 싫어하는 마음의 德이라고 할 수 있다.

2) 五倫

유교에서는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화목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해 윤리의 대강령으로서 五倫을 제시하였다. 五倫이란 「騰文公章句上」에 나오는 말로서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道理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五倫은 六藝 중 禮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맹자는 학교교육을 강조하면서, '人倫'을 밝히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요, 교과내용이 된다.[49]고 하였다.

『孟子』에는 父子 · 君臣 · 夫婦 · 長幼 · 朋友의 관계와 이와 대응해 親 · 義 · 別 · 序 · 信을 규정하고 있다. 즉 "契을 사도로 삼아 인륜을 가르치게 하셨다. 그것은 부자는 親함이 있으며, 군신은 義가 있고, 부부는 구분이 있으며,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으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50]라고 하였다.

---

46) 『孟子』, 「盡心章句上」, 知者 無不之也 堂務之爲急.

47) 『孟子』, 「告子章句上」, 是非之心 智也.

48) 『孟子』, 「離婁章句上」, 智之實 知斯二者弗去是也 禮之實 節文斯二者是也.

49) 맹민재, 「맹자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1993), 22쪽 참조.

50) 『孟子』, 「勝文公章句上」, 使契爲司徒, 敎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이것은 인생에 있어 대인관계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五常과 함께 맹자의 교육내용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五倫의 親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먼저 맺는 관계이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친한 관계이다. 즉 親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능적인 사랑의 정 곧 부모와 자식간의 원초적인 사랑을 親이라고 말한 것이다. 더구나 이 관계는 천륜인 만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五倫 중에서도 첫째로 꼽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親함이 잘 유지되어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親의 내용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에 자연스런 애정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親은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자식의 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즉 수평적 윤리이지 수직적 윤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래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한하지만,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를 '仁을 실천하는 근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든 행실의 근본이라고도 하여 그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부모에게 孝를 다할 수 있어야 형제간에 우애를 할 수 있고, 다름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孝를 중요시 하였던 것이다.[51]

義는 君臣有義로 부자유친과 같은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후천적인 인위적 결합에 기초하여 제시된 윤리규범이라 할 수 있다. 군주와 신하 간의 義 곧 '의로움'은 '공정함' 혹은 '정당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써 천륜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관계이다. 즉 군신의 관계는 곧 국가와 사회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 아래 결합된 관계이며, 군주는 통치의 주체이고 신하는 그 군주를 보필하는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君臣有義의 義는 국가나 사회의 모든 상하계급 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의 도리를 다하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군주와 신하의 관계를 결속하는 의리를 실

51) 정진일, 『유교철학원론』(문학바탕, 2005), 344-345쪽 참조.

현하기 위한 군신 쌍방간의 윤리 덕목인 義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別은 부부로서 살아가는 데 분별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분별함이란 남편은 남편으로서 본분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본분이 따로 있으니 이를 잘 헤아려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유교는 천지 만물이 음과 양의 두 기의 교감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음과 양을 평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기능적 차별을 인정하고 남편은 온화하고, 여자는 유순해야 한다는 夫和婦順의 부부간의 도리를 말하였던 것이다.[52]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는데, 남편과 아내 곧 남녀는 생리적 · 기능적 차이와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같을 수 없으므로 남편과 아내는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다함으로써, 화목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序는 어른과 아이, 곧 상하의 질서와 순서가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유지되어야 올바른 사회가 유지된다는 말이다. 즉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 곧 형과 아우 또는 연장자와 연소자 사이에 순서 혹은 차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序는 가정 안에서는 형과 아우 사이의 도리를 말하는 兄友弟恭에서 출발하여 넓게는 동성의 종족 간에 우애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는 연장자와 연소자 간에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연장자와 연소자 간의 도리로 발전된 것이다.[53]

원래 兄友弟恭의 윤리는 형은 아우보다 먼저 나서 부모로부터 그 만큼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우에 대하여 보호와 지도의 책임을 가져야 하고, 아우는 형에 대하여 공손하게 따르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兄友弟恭의 윤리는 어른은 젊은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젊은이는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敬老思想과 스승은 제자를 정성을 다하여 가르치고, 제자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

52) 김충렬, 『유가윤리강의』(예문서원,1994). 63쪽 참조.
53) 김충렬, 『유가윤리강의』(예문서원, 1994). 79쪽 참조.

람을 이끌어주고, 지위가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尊賢思想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54]

信이란 朋友有信으로 친구 사이에 信 곧 신뢰 혹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약속을 지키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벗이든 벗과 서로 사귀는 데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친구관계는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서 성립되는 관계이므로 서로 간에 그러한 신뢰가 없으면 사귀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맹자는 信을 붕우 관계에 한정하여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붕우 관계에만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사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에 지켜져야 할 윤리로서 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五倫은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간에 仁을 구현하자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평등관계의 수평적 윤리인 것이다.

3. 人間敎育의 方法

본래 유교에 있어서 교육은 각 개인의 인격 완성을 통한 이상사회의 건설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유교에서 교육은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오늘날과 같은 획일적으로 교수하여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학생들의 성장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교육이었다.

따라서 맹자는 인간의 마음 안에 천부적으로 부여된 '仁義禮智의 道德性 培養을 통해 德의 실현'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제시하여 교육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마음의 培養을 최고의 원천으로 삼았다. 즉 孟子의 교육방법이 천인합일의 인간관에 도달하기 위해 天으로부터 부여받은 善性을 잃지 않고, 보존하고 넓혀 나가는 것을 교육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사람이 비록 '四端'과 '良知', '良能'의

54) 정진일, 『유교철학원론』(문학바탕, 2005), 349쪽 참조.

善性을 타고 났다 할지라도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善性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았다.[55] 이것은 선한 본래의 마음을 培養하는 것을 교육방법의 대전제로 삼은 것이다. 이와 같이 맹자의 교육방법은 어떤 점에서 상당히 방임적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군자로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孟子의 修己方法을 살펴보자.

1) 自己反性

유교에서는 자기반성을 修己의 중요한 일면으로 삼고 있다. "나는 하루에 세 번 내 몸을 반성한다."[56]는 말과 "스스로 돌이켜 보아서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비록 허름한 옷을 입은 미천한 사람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나, 스스로 생각해서 의롭기만 하면 천만명의 사람과 대적할 지라도 나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57]는 말은 맹자가 不動心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仁義의 본심이 정해져서 자성하여 옳다고 인정되면 결코 동요됨이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인간의 내면적 힘과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믿음과 자성에 의해 세워진 자기반성의 마음자세 확립이 중요하다.

사람이 修養을 게을리 하면 사악한 마음이 싹트게 되고 따라서 행동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이란 자기반성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 "자신을 반성하여 성실히 준비해 나가면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58]

이것은 自己反省의 과정을 거쳐 성심을 다함으로서 가능하며, 이러한 반성과

---

55) 蔡仁厚,「孟子心性論之硏究」, 臺北『孔孟學報』, 제22기, 168-169쪽 참조.

56)『論語』,「學而」,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謨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57)『孟子』,「公孫丑章句上」, 自反而不縮 雖褐寬博 吾不惴焉 自反而縮 雖千萬人 吾往矣.

58)『孟子』,「盡心章句下」, …反身而誠 樂莫大焉.

정의 성실성을 인생에 있어서 최고 즐거움이라고 하였다. 인간이란 언제나 나 이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말의 행실을 돌아보고, 행실은 말을 돌아보아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이 유교에서는 인간의 本性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식위주의 교육보다는 자기반성을 통해서 心身修養 공부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2) 存心과 養性

맹자에게 실천은 인격 완성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강조되며, 修己의 구체적 방법과 과제는 인간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개발되어 왔다. 맹자는 "그 마음을 다하는 자는 그 성품을 알 것이니, 그 성품을 알면 곧 하늘을 알 것이다."[59]라고 하였다. 이 말은 善한 本心을 완전히 다할 수 있을 때, 그 本性인 善한 本性을 자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기를 닦아 天命을 기다리는 것이 天命에 순응하는 것이다.

맹자는 "그 마음을 保存하고 性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60]라고 하였으며, "그러므로 길러주면 자라지 않는 것이 없고, 길러주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는 것이 없다"[61]고 하였다. 이것은 善한 本性을 보존하라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고, 한 몸의 주재자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며, 또한 인식의 주체로서 사상과 행동을 지배한다. 사람이 善性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존하지 않으면 그 善한 本性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맹자는 天으로부터 부여받은 善한 본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이를 보존해 가는 것을 修己 곧 교육이라 보았다. 그래서 마음의 보존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실현을 완성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방법이다. 이러한 마음을

---

59) 『孟子』, 「盡心章句上」,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60) 『孟子』, 「盡心章句上」, 尊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61) 『孟子』, 「告者章句上」, 故苟得其養, 無物不長, 苟先其養 無物不消.

잃고 찾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맹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 "仁은 인간의 마음이요, 義는 인간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다니지 않고 그 마음을 잃고 추구할 줄 모르니 슬프도다!"[62]

맹자는 사람의 마음이며 길인 仁義를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매우 불안전하기 때문에 善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반성하지 않으면 본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였다. 즉 자기반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잃어버린 마음 즉 道德性을 회복하는 것이 인격도야의 첫 걸음인 것이다.

> "사람이 새나 짐승과 다른 점은 아주 적다. 다만 하늘이 내려주신 인과 의를 보통사람들은 귀한 줄 몰라 버리는 반하여 군자는 보존할 뿐인 것이다."[63]

이것은 인간과 금수의 차이나 君子, 서민의 구별은 善性의 보존에 따라 구별되어짐을 알 수 있다. 君子는 그 善性을 능히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나, 서민은 이를 상실한 것이다.

> "귀와 눈이 맡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므로 물욕에 가리어, 외물이 귀와 눈과 접촉하면 이것을 유혹할 뿐이다. 마음이 맡은 것은 생각이므로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이것이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이다. 먼저 큰 것을 세우면 작은 것이 빼앗을 수 없으니 이것이 大人이 되는 길이다."[64]

위 구절은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마음의 생각하는 능력을 가장 큰 기능으로 보고 德性을 확립하기 위해 마음을

---

62) 『孟子』,「告子上」, 仁, 人心也; 義, 人路也; 舍其踐而不由, 其心而不之求.

63) 『孟子』,「離婁章句下」. 人之所以異於禽獸者 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64) 『孟子』,「告子上」, 曰 耳目之官不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 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不能奪也; 此爲大人而已矣.

흐트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養性은 인간의 본유한 善性을 확대해서 그 선성을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의 本性은 천부적으로 의지적인 養性에 의하여 덕성으로 높일 수 있는 단서를 갖추고 있다. 이 마음의 德性을 四德이라고 부른다.

四德을 保存하고 擴充하면 인간 사회에 널리 이롭게 된다. 그러므로 存心은 修己의 방법이며, 인간이 자기수양을 통하여 善한 本性을 培養해 나간다면 완전한 인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집중이나 本性의 함양이라고 할 수 있다.

3) 寡慾과 養氣

맹자는 사람의 本性이 善하므로 그 善한 本性을 보전하기 위해서 욕망을 줄이고 氣를 길러야 한다고 하였다. 맹자가 물욕에서 인간의 마음을 보호하기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마음을 기르는 데는 欲心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65]

맹자는 寡欲이 인간의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 마음을 保存 · 培養하기 위해 慾心을 적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문제는 개인 안에 있으며, 내적인 수양이나 교육으로 本性으로부터의 善한 마음인 본래의 善한 마음을 保存할 것을 주장하였다.

> "本心을 기르는데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으면 비록 本心을 보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적을 것이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 비록 本心을 보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적을 것이다."[66]

---

65) 『孟子』, 「盡心下」, 孟子曰 養心莫善於寡欲.

66) 『孟子』, 「盡心章句上」, 養心 莫善於寡慾 其爲人也寡慾 雖有不存焉者寡矣 其爲人也多欲 雖有存

다시 말해 修己는 한편으로는 本性을 보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길러서 擴充해야 하며, 욕심을 적게 하여 자기를 자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存心과 養性의 修己는 克己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67] 또한 맹자는 사람의 本性이 善하다고 확신하였으므로 克己의 노력만 하면 修己를 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마음의 수양” 혹은 “정신 수양”이라는 말은 모두 욕심을 적게 하여 存心 養性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修己를 하려면 마음을 보존하는 일과 함께 性을 길러서 그것을 擴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氣를 기르는 일이 필요하다. 즉 氣는 뜻의 명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이므로 氣를 기르려면 뜻을 한결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특히 浩然之氣를 기르려면 마음속의 의로움을 모아야 한다고 하였다. 맹자는 浩然之氣에 대해 그의 제자와의 대화에서 "감히 묻노니, 무엇을 浩然之氣라고 합니까?"라고 맹자의 제자가 묻자 맹자는 "말하기 어렵다. 그 기의 성질은 크고 지극히 강하니 정직한 방법으로 배양하여, 그것을 해치지 않으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찬다. 그러한 기의 정의와 천도가 배합하는 것이니, 이들 양자의 배합이 없으면 그 기는 무력해지고 만다."[68] 고 하였다. 또한 "인간 만사의 도리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자신을 돌이켜보아 성실하다면, 즐거움이 그보다 클 것이 없다."[69] 고 하였다. 즉 자기의 하는 일이 이치와 의리와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떳떳하고 흡족한 마음을 갖게 되고, 따라서 그 기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浩然之氣를 기르게 되면 사람은 인간관의 관계에 뿐만 아니라, 우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焉者寡矣.

67) 정진일, 『유교윤리』(청암미디어, 2002), 148쪽 참조.

68) 『孟子』, 敢問何爲浩然之氣 曰 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 其爲 氣也. 配義與道 無是 婚也

69) 『孟子』, 孟子曰 萬物皆備於我矣 反身而誠 樂莫大焉

Ⅳ. 人間敎育의 理想

진술한 바와 같이 맹자는 仁義禮智의 四德을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聖人 · 君子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맹자는 이상적 인간으로서 聖人 · 君子를 大丈夫, 大人이라고도 하고, 浩然之氣를 지닌 사람이라고 하였다. 맹자는 흔들리지 않는 나, 참된 나를 만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浩然之氣를 제시하였다. 마음이 몸의 욕망에 이끌려가지 않으려면 마음의 기능인 反省的 省察을 통하여 나의 도덕적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참된 나를 만나는 것이다. 참된 나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그러나 마음의 도덕적 성향보다 근본적으로 더 강력한 것은 몸의 욕망이다. 그러므로 몸의 욕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浩然之氣를 기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맹자는 氣를 몸과 관련지어 파악했다. 그래서 氣는 몸을 채우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70] 즉 欺를 삶의 몸짓의 힘, 인간의 원초적 생명력으로 이해한 것이다. 한편 그는 바깥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마음과 더불어 있는 순수한 氣를 夜氣, 平旦之氣라 하여 仁義의 마음과 순수한 氣의 짝지음을 도모하였다. 氣는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생명력이지만 순수한 상태의 氣는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길러주고 지켜주는 짝 노릇도 하는 것이다.

맹자는 氣를 마음의 움직임과 관련시켜 “뜻은 氣의 장수요, 氣는 몸에 가득 찬 것이니, 뜻이 지극하고 氣가 다음이다. 그러나 뜻을 지녔어도 그 氣를 해치지 말라”[71] 하였다. 이는 마음이 근본이 되고 氣가 말단이 되므로, 마음을 먼저 바로 세워 기가 자연스레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마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氣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

70) 『孟子』, 「公孫丑上」, 氣, 體之充也.

71) 『孟子』, 「公孫丑上」, 夫志, 氣之帥也, 氣, 體之充也. 夫志至焉, 氣次焉. 故曰持其志, 無暴其氣.

그러므로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氣가 자연스레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마음과 氣의 조화로운 만남, 마음과 氣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이다. 氣는 몸의 생명력 그 자체이며 동시에 마음의 생명력의 바탕이다. 氣를 통하여 인간의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氣를 매개로 인간의 생명력이 우주의 생명력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맹자는 마음의 움직임인 뜻과 氣의 관계를 "뜻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면 氣를 뒤흔들고, 氣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면 뜻을 흔들리게 한다."[72]고 풀이한다. 즉 마음의 움직임이 氣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쏠리면 氣가 흔들려 올바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氣의 활력이 지나치게 한편으로 쏠리면 마음이 자연스레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제대로 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음과 氣가 조화롭게 만나서 발휘되는 氣, 즉 내 맑고 고운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펼쳐져 나가는 氣가 바람직한 상태의 氣가 되는 것이다. 이 氣를 나의 참된 생명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과 氣가 조화롭게 만나려면 마음이 늘 바르면서도 조화로워야 하고 氣 또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즉, 먼저 마음의 움직임인 뜻을 견고하게 가져 편안하고 고요해야 한다. '마음은 잡으면 보존되고 버리면 없어져서 출입에 일정한 때가 없어 그 방향을 알지 못하는'[73]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맹자에 있어 마음도 내 안에 있는 자연의 하나로 파악되며 그런 뜻에서 외적 자연현상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74] 내 마음이 기를 잘 간직하고 기르면 그것은 내 온 몸에 밝게 드러나고[75], 밖으로 펼쳐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맹자는 浩然之氣를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76] 다음과 같이 말하

72) 『孟子』, 「公孫丑上」, 志壹則動氣, 氣壹則動志也. 今夫蹶者趨者, 是氣也, 而反動其心.

73) 『孟子』, 「告子上」, 孔子曰, 操則存, 舍則亡, 出入無時, 莫知其鄉, 惟心之謂與.

74) 內山俊彦, 『中國古代思想史における自然認識』(創文社, 1987), 46-72쪽 참조.

75) 『孟子』, 「公孫丑上」, 君子所性, 仁義禮智根於心. 其生色也, 睟然見於面, 盎於背, 施於四體, 四體不言而喻.

76) 『孟子』, 「公孫丑上」, 敢問何謂浩然之氣. 曰, 難言也.

였다.

> “말하기 어렵다. 氣가 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곧은 것으로 길러 해하는 것이 없으면, 곧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차는 것이다. 그 氣되는 것이 義와 道를 짝하는 것이니, 이것이 없으면 주리게 된다. 이것은 義를 모아서 생기는 것이요, 義가 엄습하여 취한 것이 아니다. 행하는 것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함이 있으면 주린다.”77)

浩然之氣가 지극히 크다는 것은 이 氣가 단지 나의 생명력에 그치지 않고, 천지의 생명력과 그대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온 천지에 가득 차게 된다고 하였다. 지극히 굳세다는 것은 꿋꿋하여 외부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仁義의 마음이 氣를 간직하여 순수한 氣가 보존되었기 때문이다. 곧음으로써 길러야 한다는 표현은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여 정직함으로 길러야 함을 뜻하는데 스스로 돌이켜 반성하는 기능은 마음의 기능이다. 이 또한 마음이 氣를 간직하여 순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살펴보아 내 안에 있는 四端의 마음으로 순수한 氣를 간직하여 전개하면 氣는 생명의 힘을 얻어 저절로 왕성하게 된다. 이것을 浩然之氣는 ‘정의와 정도에 짝하는 것이므로 義와 道가 없으면 허탈하게 된다.’고 한 것이다. 義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의 근거요, 道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하늘의 법칙이고 질서이다. 浩然之氣는 내 인의의 마음과 순수한 氣가 조화롭게 만나서 하나가 된 나의 도덕적 생명의 힘이며, 동시에 우주적 생명의 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한 것이다.

도덕적 생명의 힘은 외부의 도덕규범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 생명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내 안에 있는 순수한 생명의 힘이오, 사랑의 정신이다. 이 호연한 氣는 마구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길러지는 것도 아니다. 오직 道를 말미암아 義를 행하여 날로 쌓고 달로 쌓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

77) 『孟子』, 「公孫丑上」, 浩然之氣 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 則塞于天地之間. 其爲氣也配義 與道 無是餒也.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行有不慊於心 則餒矣.

되면 호연한 氣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 가난하고 비천함도 내 마음을 근심스럽게 하지 못하고 위엄과 무력으로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나는 나를 만나서 성실해지며 참다운 나가 된다. 큰 사람이 된다.[78]

맹자는 浩然之氣를 기르는 구체적 방법으로 '반드시 기르기를 일삼고(必有事)',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고(勿正)', '마음에 잊지도 말며(心勿忘)', '억지로 조장하지도 말라(勿助長)'[79]고 한다. 이것은 네 가지 방법이지만 그 뜻하는 바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르기를 일삼음'과 '마음에 잊지 않음' 다른 하나는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않음'과 '억지로 조장하지 않음'이다. 이렇게 해서 浩然之氣를 기르게 되면 "富貴도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며, 貧賤도 그의 志을 변하게 하지 못하며, 압력과 무력도 그의 뜻을 꺾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大丈夫라 할 것이다."[80]라고 하였다.

---

78) 『孟子』,「藤文公下」,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與民由之, 不得志獨行其 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79) 『孟子』,「公孫丑上」,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無若宋人然, 宋人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 芒芒然歸. 謂其人曰, 今日病矣, 予助苗長矣. 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 天下之不助苗長 者寡矣. 以爲無益而舍之者, 不耘苗者也, 助之長者, 揠苗者也. 非鈌陜益, 而又害之.

80) 『孟子』,「勝文公章下上」,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壓武不能屈.

V. 結 論

맹자는 “윗사람이 예가 없고 아랫사람이 배움이 없다면, 사나운 백성이 일어나서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81] 라고 하였다. 『명심보감』에도 “아무리 아름다운 옥이라도 다듬고 손질하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올바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82]라고 하였다. 그 만큼 교육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맹자는 理想社會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치와 교육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은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힘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정치에 있어서도 人間敎育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교육 없이는 불가능함을 맹자는 일찍이 간파하였던 것이다.

맹자는 “仁하면 榮華롭고 인하지 못하면 侮辱이 되나니, 이제 모욕을 싫어하면서 인하지 못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마치 습한 곳을 싫어하면서 낮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83]고 하였다. 아무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더라도 人間性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하게 되면 과학기술이나 생활의 편리는 오히려 인간에게 害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敎育의 목적은 자아를 확립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禮節과 規範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경 보존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인간 존중 정신을 기르며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人間敎育의 접근 방법은 맹자의 교육이론을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

81) 『孟子』, 「離婁上」, 上無禮 下無學 賊民興 喪無日矣.

82) 『明心寶鑑』, 「勤學篇」, 禮記 曰 玉不琢 不成器 人不學 不知義.

83) 『孟子』, 「公孫丑上」, 仁則榮 不仁則辱 今惡辱而居不仁 是猶惡濕而居下也.

맹자가 주장한 교육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聖人 · 君子가 될 수 있으며, 교육은 인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육이 정신적, 내면적인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은 교사와 환경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교육자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인격자로서, 교육애와 교육열을 가지고 자기연구를 통해 피교육자를 가르쳐야 하며, 자신의 뚜렷한 신념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 또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資質이란 인성적 특성으로 구비하여야 할 조건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계발하여야 할 일반적인 특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資質은 교직의 전문화에 따라서 보다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지적 및 학문적 능력, 개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인품, 교직관의 확립, 교육적 사명감 등이다. 교사는 자기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아울러 투철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자는 인격자가 아닌 지식전달자가 되어 교육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은 개성과 흥미를 무시한 획일화된 비인간적인 교육이 획일적인 인간관을 형성하고, 서구문화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불러왔으며 서구 지향적인 교육제도와 물질문명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이 오늘날 혼란과 가치갈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맹자의 人間敎育 理論은 수용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첫째, 교과중심의 교육이 아닌 全人敎育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시행 되어야 한다.

둘째, 급변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自己啓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소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매스미디어 교육이 아닌 인간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尊嚴性과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 인간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지식, 기술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人間性과 德性을 중시하는 참된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맹자의 교육사상은 참다운 교육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인간성 상실 그리고 윤리도덕의 붕괴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강봉수 지음, 『유교 도덕교육론』(원미사, 2001).

김경탁 지음, 『맹자 중용』(광문출판사, 1965).

김충렬 지음, 『유가윤리강의』(예문서원, 1994).

金能根 지음, 『유교의 天思想』(숭실대학교 출판부, 1988).

맹자 지음, 박경환 옮김 『맹자』(홍익출판사, 2005).

_____ , 『맹자집주』(상) (명문당, 1983).

_____ , 『맹자』(현암사, 1951).

_____ , 『맹자』(육문사, 1951).

_____ , 허경진 옮김, 『맹자』(청아출판사, 1999)

박정순 지음, 정대현 외 옮김, 『감정의 윤리학적 사활』, 「감성의 철학」(서울: 민음사, 1996).

박기봉 지음, 『孟子』(비봉출판사, 1992).

신동호 지음, 『새마을 論叢, 창간호』(충남대학교부설 새마을 연구소, 1977).

서 경 지음, 『明心寶鑑』(예성출판사, 2001).

송천호 지음, 『詩經』(명지대학교출판부, 2001).

이가원 지음, 이기석 옮김, 『신역맹자』(홍신출판사, 1999)

임동석 지음, 『초간본 명심보감』(상)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_____, 『초간본 명심보감』(하)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정진일 지음, 『유교철학원론』(문학바탕, 2005).

_____, 『유교윤리』(청암미디어, 2002).

_____, 『동양의 지혜』(청암미디어, 1997).

정일옥 지음, 『大學 · 中庸』(청문각, 2003)

편집부 지음, 이민수 옮김, 『孔子家語』(을류문화사, 2003).

溝口雄三외 편저, 김석근 외 옮김, 『中國思想文化事典』(東京大學出版部, 2001).

맹민재 지음, 『孟子의 敎育思想에 關한 硏究』(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1993).

박찬각 지음, 『孟子의 敎育思想 硏究』(충남대학교 석사논문, 1984).

차광진 지음, 『孟子의 敎育思想 硏究』(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0).

윤대식 지음, 『중국철학사』, 「맹자의 인성관이 지닌 정치적 함의」(중국철학회, 2004).